



남은 신자들에게 주시는 천상의 메시지



이 메시지들은 사랑으로 일치하도록 하기 위한 에큐메니컬 운동의 일환으로 천상이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에큐메니컬 성지 공식 간행물 (Holy Love, an Ecumenical Ministry)

2021년 6월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는 에큐메니컬 평신도 사도직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 821 조에는 에큐메니즘 운동에 관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공동 기도. 마음의 회개와 거룩한 생활은 그리스도인들의 일치를 위한 사적 공적 기도와 더불어 일치 운동의 혼으로 여겨야 하며, 마땅히 영적 일치 운동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 우리의 모후와 수많은 성인과 천사들이 마라나타 샘과 성지에 발현하고 계십니다. 미국인 목격증인인 모린 스위니-카일 (Maureen Sweeney-Kyle)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영혼을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 곧, 하나되신 성심의 심방들을 통해서 개인적 거룩함으로 가는 여정으로 이끕니다.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는 모든 신앙의 모든 사람을 환영합니다. 기도는 보편적 언어입니다.
이곳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천상이 이 성지에서 주시는 평화를 함께 누리도록 모든 순례자를 초대합니다.

2021년 8월 1일 (일) - 하느님 아버지와 그분의 신성한 뜻의 축일

“많은 기도가 바쳐지고 또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 / 2021년 6월 25일)

토요 기도 모임

2021년 7월 30일

저녁 7시 기도 모임
하나되신 성심의 기도회관 및 온라인 생중계

일요 기도 모임

2021년 8월 1일

오후 2:30 - 행렬 및 기도 모임 - 하나되신 성심의 별판
(저녁 7시 기도 모임이나 온라인 생중계 없습니다.)

■ **2021년 6월 1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 나의 자비의 시대이며, 나의 모든 자녀들이 자신들에 대한 나의 통치권의 현실로 돌아오도록 내가 그들을 부르고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영혼들이 나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도록 돕기 위한 수단으로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미 기후 관련 일들과 정부 부패 등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다. 나의 자비로, 나는 내가 바로 궁극적인 신성한 안배자라는 사실을 모든 영혼이 확신하기를 원한다.”

“인간의 노력이 실패할 때, 나는 언제나 나의 신성한 안배와 함께 거기에 있다. 나는 사람들을 통해 활동하는데, 이 중 많은 이들이 세상에 있는 나의 선택된 도구들이다. 천상의 지혜가 주어진 이들은 이미 이런 진리들을 알고 있다. 그러나 다른 수많은 이들의 마음은 세상의 신들 곧, 자기 자신과 세상의 것들에 대한 교만한

의존에 사로잡혀 있다. 나는 너희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반드시 의지해야 하는 바로 그 내적 힘이다.”

“너희의 결정에 나를 포함시키는 법을 배워라.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드는 신뢰하는 아이처럼 나의 부성적 성심 안으로 들어오너라. 나는 너희가 찾고 있는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 흔히 이 해결책은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너희에게 나타나지만, 너희가 나에게 가까이 머무르면 너희는 나의 신성한 안배를 깨닫게 될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시편 4:2-4)

제 의로움을 지켜 주시는 하느님 제가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소서. 곤경에서 저를 끌어내셨으니 자비를 베푸시어 제 기도를 들으소서. 사람들아, 언제까지 내 명예를 짓밟고 헛된 것을 사랑하며 거짓을 찾아다니려 하느냐? 주님께서는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기적을 베푸심을 알아라. 내가 부르짖으면 주님께서는 들어 주신다.

■ 2021년 6월 2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가 이 메시지들을 읽을 때, 마음으로 이 메시지들을 음미하기 바란다. 현 세대는 지혜와 상식을 얻고자 하는 갈망이 결여된 세대다. 요즘 시대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악에게 쉽게 영향을 받는데, 이는 그들이 사탄의 영향력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은 세상의 마음에 대한 악의 승리다. 불신은 사탄의 존재에 대한 진리를 상쇄하지 않는다.”

“(영혼들을) 구원하는 진리는 바로 나의 계명들의 진리다. 요즘 시대에 이 진리는 매우 인기가 없다. 사람들은 보통 그들을 다스리는 권위가 있는지 찾아보는 대신, 일반적으로 그들의 자유의지를 그들이 기꺼이 복종하는 ‘권위’로 만든다. 이 자유의지라는 거짓 신은 영혼으로 하여금 잘 속게 만들며, 악의 유혹에 마음을 열게 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사탄이 작은 싸움뿐 아니라 큰 싸움에서도 이긴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진리가 공격 받고 있는 이 전쟁에서 너희의 가장 큰 무기는 진심 어린 기도다. 나는 사탄의 교묘한 공격에 맞서 모든 기도를 사용한다. 이 사실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 것, 바로 그것이 사탄의 승리다. 지금은 너희가 어느 쪽이든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다.”

+ 성경 구절 독서 (에페 6:10-17)

끝으로, 주님 안에서 그분의 강한 힘을 받아 굳세어지십시오.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우리의 전투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권력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날에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채비를 마치고서 그들에게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한 무장을 갖추십시오. 그리하여 진리로 허리에 띠를 두르고 의로움의 갑옷을 입고 굳건히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위한 준비의 신을 신으십시오.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잡으십시오. 여러분은

악한 자가 쓰는 불화살을 그 방패로 막아서 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아 쓰고 성령의 칼을 받아 취하십시오. 성령의 칼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 2021년 6월 3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요즘 세상은 계절의 변화를 겪고 있다. 대기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으며, 폭풍우가 치기도 한다. 너희 나라(미국)의 정치 기류 또한 바뀌었다. 진리를 지지하던 시절은 지나갔으며, 이제 비밀 안건과 거짓 정보라는 유해한 기류가 대기를 채우고 있다. 이 시대의 정치적 폭풍들은 사실은 선과 악의 싸움이다. 악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압과 협박을 사용한다. 그래서 진리를 지지하는 운동은 악의 시절이 시작됨에 따라 제거되었다.”

“이런 상황들이 바뀌려면, 두려움의 기류가 용기의 기류로 바뀌어야만 한다. 이것은 개인의 영웅적인 행위를 요구한다. 요즘 시대에는 기후 변화에 대해 말들이 많다. 그러나 사람들이 지지해야 하는 진짜 기후 변화는 부정직한 지도부의 환경에서 진리의 환경으로 바뀌는 변화다.”

+ 성경 구절 독서 (2 티모 4:1-5)

나는 하느님 앞에서, 또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그분의 나타나심과 다스리심을 결코 그대에게 엄숙히 지시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계속하십시오. 끈기를 다하여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타이고 꾸짖고 격려하십시오.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더 이상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입니다. 호기심에 가득 찬 그들은 자기들의 욕망에 따라 교사들을 모아일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에는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신화 쪽으로 돌아설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어 내며, 복음 선포자의 일을 하고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 2021년 6월 4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망가지면, 사회는 타락하게 된다. 진리란 ‘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라.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진리를 너무나 무시하기 때문에 정부나 도덕 규범, 법률 등은 도덕적 타락의 새로운 최저점에 도달하게 되었다. 합법성은 더 이상 진리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 나라(미국) 정부 내에 구축되어 있는 견제와 균형 시스템은 타협되었으며, 이는 연방은 물론 각 주에서 많은 면에서 법체제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것이 각 영혼의 도덕성이 그렇게도 중요한 이유다. 이것은 영혼 자신의 구원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세상의 도덕의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나의 계명들을 존중하는 영혼 한 명이 세상 전체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나의 부성적 마음에 들게 한다. 이기도 성지에서*, 그리고 특별한 기도 카드를 통해 내가 온 세상에 베풀고

있는 '세 가지 축복'은** 세상을 좀 더 나은 곳, 좀 더 진리와 나의 신성한 뜻에 일치하는 곳으로 만든다. 내가 매우 아낌없이 베푸는 이 은총을 누리는 쪽을 선택하여라.”

+ 성경 구절 독서 (1 요한 3:18-24)

자녀 여러분,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합시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음을 알게 되고, 또 그분 앞에서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우리를 단죄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우리를 단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하는 것은 다 그분에게서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 마음에 드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이렇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분의 아드님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 2021년 6월 13일 하나되신 성심의 별판에서 자비의 시간 (오후 3시)에 묵주기도를 바칠 때 이날 성지에 참석하신 사람들에게 '세 가지 축복'이 베풀어질 예정입니다. 2021년 5월 18일 메시지를 참조하십시오.
** 하나님 아버지의 '세 가지 축복' (빛의 축복,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축복, '계시된' 축복)에 관한 정보는 한국어 웹사이트 '하나되신 성심의 메시지'의 공지 사항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2021년 6월 5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성심 안으로 들어와 그곳에 머무는 영혼들은 나의 신성한 뜻에 일치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된 성심의 여섯째 심방이다. 이런 영혼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영웅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나의 영원한 은총을 믿었고, 매 현 순간을 소중히 여겼다. 이것이 순결한 마음, 한결같은 마음이다.”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면, 손에 꼽을 만큼 소수의 영혼들이 나의 여섯째 심방 안에 있다. 세상에는 이 정도로 세상에서 초탈하기 위해 노력하는 영혼들이 소수에 불과하다. 인간의 지성이 나와의 이런 깊은 관계를 목표로 삼고자 하는 의향을 지녀야만 한다. 이런 영혼은 그의 삶의 유혹을 물리치고 극복하였다. 나와 이런 일치를 나눌 영혼이 누가 될지를 선택하는 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영혼 자신이다.”

“자유의지는 내가 주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라. 자유의지를 지혜롭게 사용하여라.”

+ 성경 구절 독서 (에페 5:15-17)

그러므로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시간을 잘 쓰십시오. 지금은 악

한 때입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 2021년 6월 6일 -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거룩한 동정녀의 ‘피앗’을 한 번 묵상해 보아라 -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나의 신성한 뜻에 대한 거룩한 성모의 내맡김이었다. 마리아가 이렇게 의탁했던 것은 비단 한 번뿐이 아니었다. 마리아는 일생 동안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의탁하였다. 마찬가지로, 각 영혼 또한 삶에서 단 한 번만 회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거듭거듭 반복해서 회심해야 한다. 오직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서야 나의 뜻에 대한 영혼의 내맡김과 그의 지속적인 회심이 멈추게 되는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루카 1:38)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 2021년 6월 7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회심은 예수를, 그리하여 너희의 아با 하나님인 나를, 너희 마음속 첫째 자리에 두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너희는 이런 지속적인 마음가짐 곧, 매 현 순간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나의 신성한 뜻에 자유의지를 내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영혼은 나와 나의 계명들을 자신의 삶에서 첫째 자리에 두게 된다. 또한 자신의 단점들에 대해 더욱 잘 알게 되며, 마음속 죄나 죄지를 기회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회심한 영혼은 진리 안에서 산다.”

“참된 회심은 오로지 영혼이 그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삶에 도달할 때 끝난다. 회심한 영혼은 자신의 영적 상태에 결코 만족하지 않으며, 항상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들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이런 영혼에게 죽음은 그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며, 그의 노력의 열매의 실현이다.”

+ 성경 구절 독서 (갈라 6:7-10)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물당하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가 뿌린 것을 거두는 법입니다. 자기의 육에 뿌리는 사람은 육에서 멸망을 거두고, 성령에게 뿌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을 합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제때에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 모든 사람에게,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좋은 일을 합시다.

■ 2021년 6월 8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영혼이 일단 회심의 길에 들어서면, 계속 그 길 위에 머무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사탄은 쉬지 않는다. 그 자는 회심의 길에 온갖 방해물을 놓는다. 영혼이 악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 중 하나는 바로 영적 교만이라는 죄다. 영혼은 자신의 모든 영적 진보를 다 자신의 공이라고 생각하며, 자신보다 덜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이들보다 자신이 더 우위에 있다는 거짓에 넘어간다. 흔히 이것은 영적 교만일 뿐 아니라 잘못된 판단이기도 하다.”

“모든 선은 너희의 창조주인 나에게서 나온다. 너희에 대한 나의 통치권을 인정하여라. 선을 격려하고, 또 오류가 너희를 공격할 때 너희를 지지하도록 성령을 보내는 이가 바로 나다. 너희의 영적 삶에 대한 지배권을 이 진리의 영에게 넘겨주어라. 이렇게 하면 너희는 오직 나만이 성취할 수 있는 것들을 인간의 노력을 통해 성취했다는 착각에 속아넘어가지 않게 될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필리 2:12-13)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늘 순종하였습니다. 내가 함께 있을 때만이 아니라 지금처럼 떨어져 있을 때에는 더욱더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힘쓰십시오. 하느님은 당신 호의에 따라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시어, 의지를 일으키시고 그것을 실천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 2021년 6월 9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영혼이 지속적으로 나의 신성한 뜻에 ‘예’라고 응답한다면, 나는 하루종일 그의 곁에 있을 것이다. 나는 그가 올바른 선택을 내리도록 촉구할 것이며, 그의 천사는 그를 위해 강력하게 활동할 것이다. 나는 그가 죄를 범할 수도 있는 모든 상황을 드러내 보여 줄 것이며, 모든 유혹에서 벗어나도록 그를 이끌 것이다. 요컨대, 영혼은 모든 상황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기에, 그의 삶은 좀 더 수월해질 것이다.”

“나의 ‘허락하는 뜻(Permitting Will)’을 믿는 영혼은 결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없다. 그는 나의 안배를 믿으며, 내가 모든 육체적, 영적, 감정적인 위협으로부터 그를 구제해줄 것이라는 사실을 신뢰한다. 그는 평화를 누린다. 나는 세상의 마음의 회심에 도움이 되도록 이런 영혼들을 나의 도구로 선택한다. 내적으로 평화를 누리는 영혼은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삶이 제시하는 어떤 어려움도 기꺼이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나의 뜻을 신뢰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라. 이것은 내가 기꺼이 응답하는 기도다.”

+ 성경 구절 독서 (시편 5:11-12)

그러나 당신께 피신하는 이들은 모두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환호하리이다. 당신 이름 사랑하는 이들을 당신께서 감싸 주시니 그

들은 당신 안에서 기뻐하리이다. 주님, 당신께서는 의인에게 복을 내리시고 큰 방패 같은 호의로 그를 덮어 주십니다.

■ 2021년 6월 10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는 (이번 주말인) 하나된 성심의 축일을 위해서, 또 나의 ‘세 가지 축복’을 얻기 위해서, 너희 마음을 준비해야 한다. 나를 신뢰함으로써 너희 마음에서 세속적인 걱정을 없애라. 우리의 하나된 성심에 의탁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많은 은총을 베풀어줄 것이다. 하나된 성심 안에는 거룩함의 본질 곧, 순수한 사랑이 있다. 너희는 온 마음으로 응해 바로 이 사랑을 본받으라고 부름 받은 것이다.”

“모든 사랑은 그 중심에 애정의 대상이 있다. 거룩한 사랑은 그 중심에 만물의 창조주인 나에게 대한 사랑과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이웃 사랑이 있다. 이것이 너희가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데 전념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하나된 성심을 기념하는 길이다.”

“어떤 이들은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바꾸어 개인적 거룩함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곧 세상과 세속적인 목표와 거짓 약속에서 초탈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너희 마음속에서 이 노력을 끊임없이 반복하기 시작함으로써 나의 가장 좋은 도구가 되어라.”

+ 성경 구절 독서 (골로 3:1-10)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오른 쪽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현세적인 것들, 곧 불륜, 더러움, 욕정, 나쁜 욕망,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들 때문에 하느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립니다. 여러분도 전에 이러한 것들에 빠져 지낼 때에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분노, 격분, 악의, 중상, 또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수치스러운 말 따위는 모두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 인간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 버리고, 새 인간을 입은 사람입니다. 새 인간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모상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면서 참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 2021년 6월 11일 -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오늘 나는 세상의 마음이 내 지극히 거룩한 성심에서 위안을 구하도록 초대한다. 너희는 내 성심 안에서 거짓이나 자아 충족감에 대한 집착,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어 있는 계획 등 세상의 온갖

문제에 대해서 위안을 찾을 수 있다. 너희는 선과 악의 차이를 분별하고 오직 선만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내 거룩한 성심이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을 다스렸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안전하고 평화로웠겠느냐.”

“오늘 나는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을 위해 너희가 기도해 줄 것을 청한다. 그들은 너무 늦기 전에 반드시 나와 화해해야 한다. 너무 늦은 때란 그들이 심판 받기 위해 내 앞에서 있는 때를 의미한다.”

“나는 내 거룩한 성심에 대한 경의를 통해 축복이 몹시 필요한 시대에 많은 축복을 베풀어준다. 나는 박해 받는 이들의 기운을 북돋아줄 것이다. 나는 나와 더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모든 이와 더 깊은 관계를 맺을 것이다. 세상이 그들에게 맞설 때,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줄 것이다. 내 거룩한 성심을 사랑하는 쪽을 택하여라.”

+ 성경 구절 독서 (시편 5:12-13)

그러나 당신께 피신하는 이들은 모두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환호하리이다. 당신 이름 사랑하는 이들은 당신께서 감싸 주시니 그들은 당신 안에서 기뻐하리이다. 주님, 당신께서는 의인에게 복을 내리시고 큰 방패 같은 호의로 그를 덮어 주십니다.

■ 2021년 6월 12일 -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 기념일. (오후). 복되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밤 내 티 없는 성심 축일에, 나는 하느님께서 세상의 평화를 내 성심에 맡기셨다는 사실을 너희에게 상기시켜 준다. 너희가 묵주기도를 바치며 내 성심을 공경할 때 이 사실을 유념하여라.”

■ 2021년 6월 13일 / 하나되신 성심 축일 - 오후 3시 기도 모임. (이 메시지는 여러 날에 걸쳐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아빠 하느님께서 이번 주말, 당신과 거룩한 성모 대신 내가 너희에게 말하도록 명하셨다. 나는 지금 인류를 진리 안으로 다시 이끌기 위해 말하고 있다. 진리란, 세상의 미래는 인간이 하느님과 맺는 관계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다. 진리의 적인 사탄은 너희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을 원치 않는다. 아빠 하느님은 두려움이 당신이 인류와 맺는 관계의 바탕이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분은 거룩한 사랑이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기초가 되기를 바라신다. 그분은 사랑과 자비의 하느님이시다. 천상과 지상 사이의 심연을 가로지르는 다리는 바로 거룩한 사랑이다. 우리의 ‘하나된 성심의 심방들’이 곧 하느님의 신성한 뜻으로 가는 길이다.* 이 심방들은 개인적 거룩함의 완덕에 이르는 가장 빠르고, 가장 쉬운 길이다.”

“오늘 나는 계명에 대한 순종을 통해 인간과 하느님을 화해시키기 위해 너희에게 왔다. 이것은 오직 모든 계명을 수용하는 거룩한 사랑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내 형제자매들아, 너희의 온 마음을 우리의 하나된 성심에 의탁하여라. 이렇게 하면 너희는 너희를 위한 아버지의 신성한 뜻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너희 자신을 위해 어떤 것도 남겨두지 마라. 그렇게 하면 너희는 평화를 누릴 것이며, 진리 안에서 살게 될 것이다. 또한 은총이 너희 마음속에 자리잡게 될 것이다.”

“세상의 어떤 어려움들은 인간이 그들의 창조주와 화해하기를 주저하기에 더욱 악화될 것이다. 이런 어려움들을 완화하는 데에는 기도가 답이다. 거짓 신들에게 헌신하는 이들이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들이다. 그러므로, 세상의 마음의 회심을 위해 계속 기도하여라.”

“오늘, 우리의 하나된 성심의 계시를 기리면서 부디 악으로부터의 피난처인 우리의 성심의 보호와 우리의 성심이 제공하는 은총의 보고를 기념하여라. 우리의 하나된 성심에 대한 신심은 천국을 얻을 것이라는 영혼의 예정된 운명의 표시다. 우리의 하나된 성심은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세상에 주어진 신심이다. 중요하지 않은 영혼이란 없다. 모든 영혼은 우리의 하나된 성심을 사랑하도록 부름 받았다.”

“우리의 성심 안에서는 모든 이가 하나다. 그곳에서는 나이나 신체적 특징, 세상의 호평 등은 중요하지 않다. 오직 너희의 마음속 거룩한 사랑만이 가장 중요할 뿐이다. 이것은 너희가 우리의 성심으로부터 위안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다.”

(오후 3시 20분에 ‘세 가지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 ‘하나되신 성심의 심방들’에 관한 정보는 한국어 웹사이트의 ‘하나되신 성심의 계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holylovekorean.com/xs/uh>) ‘하나되신 성심의 심방들에 대한 계시’는 ‘추천 도서 및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holylovekorean.com/xs/data/76237>)

■ 2021년 6월 14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 주어서 기쁘다.* 그보다 더 많은, 수천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모든 기도는 악에 대항하는 내 손의 무기다. 여전히 너희가 이 성지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하여라.** 미래와 과거에 대한 너희의 걱정을 모두 나에게 내맡겨라. 나의 자비로운 사랑이 이 모든 것을 은총으로 덮는다.”

“이 선교회는 이제 전세계적인 유행병 이후 번창할 것이다. 나는 내가 베푸는 은총 하나하나를 대단히 소중히 여긴다. 이것은 마치 나의 한 부분을 이곳에 오는 믿는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과 같다. 이곳에서 베풀어지는 은총 중에서 낭비되는 은총은 없다. 각각의 은총은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기회다.”

“그러므로, 너희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 이곳으로의 너희의 순례 여정을 다른 이들과 함께 자세히 나누어라. 이것은 더욱더 많은 사

람들로 하여금 이 기도 성지에 와서 천상이 이곳에서 베푸는 모든 것을 얻도록 고무시킬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티토 2:11-14)

과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났습니다. 이 은총이 우리를 교육하여, 불경함과 속된 욕망을 버리고 현세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도록 해 줍니다. 복된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내어 주시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해방하시고 또 깨끗하게 하시어, 선행에 열성을 기울이는 당신 소유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 약 3 천여명의 순례자들이 자비의 시간인 오후 3 시 하나님 아버지의 '세 가지 축복'을 받기 위해 마라나타 샘과 성지의 발현 성지에 참석했습니다.

** 성지의 여러가지 순례 동영상들:

(<http://holyllovekorean.com/xenews/78527>)

저녁 7 시 매일 묵주 기도 모임 생중계:

(<https://www.hollylove.org/livestream/>)

*** 성지의 여러가지 축복 모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모님, 성 요셉, 미카엘 대천사):

(<http://holyllovekorean.com/xemessage/79200>)

■ 2021 년 6 월 15 일. 저는 (모런)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 곁에, 또 너희 마음속에 있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아라. 나는 거짓을 너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너희의 믿음을 해치는 모든 것에서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너희가 훗날 나에게 올 시간이 되면, 나는 너희의 모든 결정을 검토할 것이다. 너희가 악이 아니라 선을 선택할 때, 바로 이런 순간들이 너희를 구원으로 이끈다.”

“가능하면 언제나 서로 도와주고, 특히 기도로 서로 도와라. 너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 그것이 곧 믿음의 실천인 것이다. 마음속으로 너희 이웃의 단점들을 찾아보려 하지 마라. 오히려 서로가 지닌 좋은 점들을 찾아보아라. 이런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나와 너희의 관계를 강화시킨다.”

“무엇보다도, 너희 삶 속의 나의 중재의 힘을 믿어라. 나는 신뢰가득한 기도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 성경 구절 독서 (시편 5:12-13)

그러나 당신께 피신하는 이들은 모두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환호하리이다. 당신 이름 사랑하는 이들을 당신께서 감싸 주시니 그들은 당신 안에서 기뻐하리이다. 주님, 당신께서는 의인에게 복을 내리시고 큰 방패 같은 호의로 그를 덮어 주십니다.

■ 2021 년 6 월 16 일. 저는 (모런)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

니다. “나는 지난 주말 이 기도 성지에 왔던 이들이 그들의 삶이 영원히 바뀌었음을 깨닫기 바란다. 그것이 이곳에서 베풀어지는 모든 은총의 목적이다. 집으로 돌아간 후에 너희가 은총을 통해 얻은 것들을 천천히 숙고하여라. 일단 한 번 이 기도와 성지 순례 체험이 삶의 일부분이 되면, 삶이 변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믿음을 가지고 이곳에 온 이들은 더욱 깊은 믿음을 얻게 될 것이다. 이곳을 판단하기 위해 온 이들은 그들이 경험했던 것들의 진실성을 부인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 선교회는 진리의 그릇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진리 그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다. 이곳에서 베풀어지는 수많은 은총을 통해서 너희 마음을 진리 안에서 강화시켜라. 그러면 너희는 사탄이 너희의 마음을 공격할 때 그자를 무찌를 수 있게 될 것이다.”

“나는 모든 믿는 이들에게 이 선교회의 진리를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주기를 요청한다.”

+ 성경 구절 독서 (2 티모 4:1-5)

나는 하나님 앞에서, 또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그분의 나타나심과 다스리심을 결코 그대에게 엄숙히 지시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계속하십시오. 끈기를 다하여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타이르고 꾸짖고 격려하십시오.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더 이상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입니다. 호기심에 가득 찬 그들은 자기들의 욕망에 따라 교사들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에는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신화 쪽으로 돌아설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어 내며, 복음 선포자의 일을 하고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 2021 년 6 월 17 일. 저는 (모런)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성심의 가장 큰 고통은 영혼들이 나를 알고 또 사랑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런 영혼들은 그릇된 자유의 지족, 오직 자기 자신만을 만족시키려 하고 온갖 세속적인 욕구를 채우려 하는 자신의 뜻에만 전념한다. 이런 이들의 마음속에는 ‘자기 만족’이라는 신이 있으며, 사탄은 이것이 그들이 노력할 만한 유일한 것이라고 그들을 설득한다.”

“이런 영혼들 중 일부는 지상 삶의 목표가 쾌락을 위한 기회라고 생각하며, 이 목표를 향해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 그들의 불쌍한 삶의 끝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사실이 분명해질 때, 그들 중 일부는 나에게 돌아오지만, 그들의 천국은 그들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았다면 누렸을 천국이 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각자가 지상에서 살아갈 때 지니고 있었던 열망에 따라 보상한다.”

“회심이란 영혼이 이런 진리들을 깨닫는 것이다. 사탄은 이런 진리들에 반대한다.”

+ 성경 구절 독서 (1 코린 2:12-13)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오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선물에 관하여, 인간의 지혜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로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것을 영적인 표현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 2021년 6월 17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아빠 하느님과 나는 사람들이 8월 1일 다시 한 번 이곳에 모여 기도하기 바란다.”*

* ‘하느님 아버지와 그분의 신성한 뜻의 축일’은 예수님의 요청에 따라 매년 8월 첫째 일요일에 하느님 아버지를 기리는 날입니다. 2017년 4월 23일 메시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6월 18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뜻을 나에게 내맡긴다는 것은 너희가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한 나의 ‘허락하는 뜻(Permitting Will)’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십자가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의 삶의 매우 중대한 부분이었던 것처럼 영혼들을 구원하는 수단으로서 모든 이의 삶에 허락된다. 영혼은 그가 원하는 십자가 또는 그가 앞으로 협력할 십자가를 고를 수 없다. 이같은 사실 자체가 유익한 희생의 일부이며, 나는 이를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사용한다.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행위는 선과 악의 저울이 균형을 이루게 한다. 이런 감미로운 받아들임은 나에게서 가장 멀리 있는 영혼들에게 그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닌 은총들을 그들에게 베풀어줄 수 있는 내 손의 도구가 된다.”

“나는 어떠한 불평 없이 가장 어려운 상황들을 받아들이는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영혼들을 매우 아낀다. 이런 이들은 삶이 제시하는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큰 평화를 누리는 이들이다. 나의 사랑의 손길은 나의 뜻을 받아들이는 고통받는 영혼 위에 늘 머문다.”

+ 성경 구절 독서 (에페 2:8-10)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기 자랑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선행을 하며 살아가도록 그 선행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 2021년 6월 19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어떤 상황에서도 늘 너희를 위한 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 나의 계명들이 곧 나의 뜻이다. 이 계명들은 시

시각각으로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적용된다. 나의 계명들은 시시각각으로 이어지는 사랑 즉, 각 영혼과 천국을 함께 누리기를 갈망하는 진실한 사랑에서 인류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나의 계명들에 대한 순종을 통한 영혼의 사랑의 화답이 그를 나에게 가까이 머물게 하는 것이다.”

“나는 사랑으로 다스린다. 나의 뜻은 영혼들이 나의 모든 계명에 확고하게 ‘예’라고 대답하며 나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다. 영혼은 나의 뜻의 진리, 나의 계명들 안에서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 이것이 각 영혼과 세상이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 성경 구절 독서 (1 요한 3:19-24)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음을 알게 되고, 또 그분 앞에서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우리를 단죄하더라도 그 령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우리를 단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하는 것은 다 그분에게서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 마음에 드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이 령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분의 아드님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 2021년 6월 20일 - 아버지의 날.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의 구원은 매 현 순간 안에 있으며, 너희가 매 순간 내리는 선택에 있다. 나는 너희가 나를 사랑 가득한 아버지로 사랑해 주기를 원한다. 나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나의 계명을 무시할 때 내가 마지못해 내려야 하는 나의 정의를 두려워하여라. 나는 너희 중 몇몇은 세상에서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랑 가득한 아버지다. 나는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 앞에 놓는 길을 따를 만큼 나를 사랑하여라. 뉘우치는 마음으로 너희의 죄를 나에게 다오. 나는 언제라도 너희를 기꺼이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전쟁은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깨달아라. 나의 계명에 대한 인간의 무관심은 전 세계적인 벌을 초래할 수 있다. 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나 죄를 뒤따르는 나의 불가피한 정의를 두려워하여라.”

“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을 통해 서로를 존중함으로써 나의 사랑에 호소하여라. 아버지가 자녀들을 지켜보듯 나도 너희의 선택들을 지켜보고 주시하고 있다.”

+ 성경 구절 독서 (필리 2:12-13)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늘 순종하였습니다. 내가 함께 있을 때만이 아니라 지금처럼 떨어져 있을 때에는 더욱더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해

여 힘쓰십시오. 하느님은 당신 호의에 따라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시어, 의지를 일으키시고 그것을 실천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 2021년 6월 21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의 모든 사랑과 사랑의 행위는 만약 그것들이 나의 계명에 대한 순종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너희의 전 생애는 너희가 자유의지로 너희에 대한 나의 지배권을 받아들임을 통해 너희가 나의 계명을 사랑함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으며, 또 마땅히 그래야 한다.”

“엔터테인먼트 부문이나 스포츠 세계, 또는 어느 분야든 그들이 두각을 발휘하는 선택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으로 칭송 받는 이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나의 계명에 대한 순종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은 그들의 심판에 있어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참된 순종은 사랑에 기초한다. 모든 권위는 권력이나 지배가 아니라 나에게 대한 사랑과 나의 계명에 대한 사랑에 근거해야만 한다. 권위가 거룩한 사랑에 기초하면, 그것은 의로움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거룩한 순종을 요구한다. 오늘날 모든 활동 분야에는 개인적 권력과 지배라는 거짓 의로움이 사람들 사이에 존재한다. 나는 영혼들에게 이런 유형의 권위에 대해서는 (순종해야 하는)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이것은 분별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분별력을 얻기 위해 기도하여라.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1 베드 5:2-4)

여러분 가운데에 있는 하느님의 양 떼를 잘 치십시오. 그들을 돌보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진해서 하십시오. 부정함의 이익을 탐내서 하지 말고 열성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들을 위에서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 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으뜸 목자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화관을 받을 것입니다.

■ 2021년 6월 22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와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갈망으로 너희 마음을 가득 채워라. 이것은 거룩한 포부로서 훌륭한 기도를 장려한다. 내 눈에 너희 영혼을 거의 교화하지 않는 서두르는 기도에 안주하지 마라. 가장 훌륭한 기도는 나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그 외 다른 모든 것은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치 않는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나는 열렬한 기도를 기다리며, 이런 기도 노력에 대한 보답으로 지상에 많은 은총을 보낸다. 오로지 나만이 열렬한 기도에 보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고 있으며, 각 청원에 관해서 인간의 마음과 세상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지를 안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영혼이란 한때는 나를 알았으나 지금은 나에게서 멀리 떠난 영혼을 말한다.”

“오늘 나는 전세계 곳곳에 있는 나의 기도 용사들의 군대가 서로 합심하여 하나의 기도 곧, 세상의 마음의 회심을 위한 기도를 바치기를 격려한다.”

+ 성경 구절 독서 (필리 2:1-2)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를 받고 사랑에 찬 위로를 받으며 성령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애정과 동정을 나눈다면, 뜻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지니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이루어,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 주십시오.

■ 2021년 6월 23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평화와 친구가 되어라. 너희의 평화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 사탄이 너희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침입 경로를 찾아냈다는 표시다. 사탄은 너희 각자의 개인적 거룩함에 있어 가장 약한 부분을 고른다. 이것은 종종 대인 관계, 물욕, 사람들이나 어떤 것들에 대한 애착 등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탄이 이런 것들을 통해 너희 마음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그것은 언제나 너희가 개인적 거룩함의 요새의 어느 부분을 강화시켜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사탄의 공격들은 너희로 하여금 어느 면에서 너희의 거룩함이 강화되어야만 하는지를 깨닫게 해준다. 사탄은 사실 이렇게 너희와 나의 관계에 있어서 너희가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 깨닫도록 너희를 도와주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자기 성찰을 하는 것은 영혼 각자의 몫이다. 흔히 사탄은 마음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교만, 심지어 독선까지도 사용한다. 너희가 기도를 너희의 요새이자 방패로 사용한다면, 사탄이 어떤 선으로 위장할 기회가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사탄은 진리를 왜곡할 수 없게 된다. 사탄은 너희 가운데 불화를 가져오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 기도의 은사는 진리를 드러내 밝힌다.”

+ 성경 구절 독서 (에페 6:10-17)

끝으로, 주님 안에서 그분의 강한 힘을 받아 굳세어지십시오.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우리의 전투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권력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날에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채비를 마치 고서 그들에게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한 무장을 갖추십시오. 그리하여 진리로 허리에 띠를 두르고 의로움의 갑옷을 입고 굳건히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위한 준비의 신을 신으십시오.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잡으십시오. 여러분은 악한 자가 쓰는 불화살을 그 방패로 막아서 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아 쓰고 성령의 칼을 받아 쥐십시오. 성령의 칼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 2021년 6월 24일 -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사랑 가득한 아

버지로서, 나는 천국으로 가는 지침으로서 내가 너희에게 준 율법을 너희가 좀 더 잘 이해하기를 바란다. 이 십계명은 거룩한 사랑으로 구현된다. 곧, 만유 위에 나를 사랑하고 너희 이웃을 너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단지 이 계명들을 알고 있거나 읽는 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너희는 반드시 이 계명들을 내면화하고, 단순함 가운데 이 계명들이 명하는 모든 것을 습득해야 한다. 첫째 계명은 만유 위에 나를 사랑하기를 명한다. 제 4 계명부터 제 10 계명까지는 영혼이 어떻게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해야만 하는지를 알려준다.”

“나는 이 율법이 너희의 일상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너희가 깨닫도록 너희에게 이 율법을 자세히 분석해 주고자 한다. 그러면 너희는 좀 더 잘 나의 계명들에 따라 살고 천국에서 너희의 자리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거룩한 사랑은 모든 계명들의 구현이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면서 오늘은 제 1 계명부터 시작해 보자. 제 1 계명은 너희가 반드시 나를 만물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내 앞에서 다른 거짓 신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령한다. 이것은 거짓 신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나에게 대한 사랑보다 더 앞세운다. 이것들은 개인적 안락이나 겉모습, 부, 감각적인 욕망, 명예, 엔터테인먼트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짓 신들이다. 사람이나 장소나 물건 등 영혼이 나에게서 나온 은총으로 여기지 않는 모든 것은 그의 영 안에서 거짓 신으로 자리 잡는다. 인간은 무의식적으로나 의도적으로나 모든 선을 인간의 노력의 공으로 돌리면 안된다. 이것은 인간의 업적을 그의 창조주 위에 두는 것이며, 창조주의 전능을 인간의 것으로 만드는 셈이다. 모든 인간의 노력이나 위업은 나의 부성적 성심으로부터 비롯된다. 모든 인간의 노력은 인류를 위한 나의 부성적 보살핌의 열매다.”

+ 성경 구절 독서 (마태 22:34-40)

가장 큰 계명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 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사이드들이 한데 모였다.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 2021년 6월 25일. 저는 (모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는 계명들에 대한 분석을 계속하겠다. 이것은 오늘날 나의 율법에 대한 경시가 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세상에는 전반적으로 나를 기쁘게 하려는 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의 지극히 거룩한 이름과 내 아들의 이름은 일반적으로 일상생

활에서 자주 쓰는 속어로 전락하였다. 제 2 계명은 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분명히 명시한다. 그러나 오늘날 일반적인 관습은 놀라움이나 불신, 또는 분노를 표현하는 데 (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며) 이 법을 모독한다.* 나의 이름이나 내 아들의 이름을 사용하는 이의 마음속 동기는 경의와 존경을 표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이 사악한 시대에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나에게 대한 존경심이나 경외심이 거의 없다.”

“모든 계명 하나하나의 깊은 이해를 요구한다. 계명들은 단지 표면적인 수준에서 요약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각 영혼은 그 이상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나를 안다는 것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다. 나의 계명들을 알고, 또 이해하지 않고서는 영혼은 나를 사랑하지도, 또 알 수도 없다.”

+ 성경 구절 독서 (마태 22:34-40)

가장 큰 계명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 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사이드들이 한데 모였다.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 역주: 미국에서는 일상적인 대화에서 ‘Oh My God’ 나 ‘Jesus Christ’가 ‘세상에’, ‘이럴수가’, ‘갑소사’ 등의 감탄사로 굉장히 많이 쓰이며, 심지어는 ‘빌어먹을’ 같은 욕설적 의미로도 사용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 2021년 6월 25일. 저는 (모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8월 1일은 코로나바이러스 사건에 구애받지 않는 우리의 첫 번째 기도행사가 될 것이다. 버스는 다시금 정원이 다 찼었던 예전으로 돌아가도 되며, 사람들은 (성지의) 카페테리아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많은 기도가 바쳐지고 또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 2021년 6월 26일. 저는 (모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주일을 거룩히 지내야 함’을 명심하여라. 이것이 나의 제 3 계명이다. 이 율법은 영혼이 일요일에 어떠한 불필요한 일이나 활동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한다. 불필요한 일이란 다른 날까지 기다렸다가 할 수 있는 일을 말한다. 영혼은 다른 이들이 안식일에 일하게 만드는 어떠한 활동도 하면 안된다. 이 날은 반드시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이렇날 쉬었던 것을 본받아 휴식을 취하는 날로 기념되어야 한다.”

“필요한 활동이란 아픈 이들이나 장애가 있는 이들을 돌보아 주거나 어려운 이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일, 또는 도움이 절실히 필

요한 이들을 구조하거나 정신적, 신체적, 감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보살피는 일 등을 말한다. 안식일은 나를 사랑하고 찬미하는 이의 마음속에서 영성을 기르는 데 바쳐져야 한다.”

+ 성경 구절 독서 (마태 22:34-40)

가장 큰 계명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 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새자들이 한데 모였다.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 2021년 6월 27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계명들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마치 아름다운 꽃밭을 지나가면서 그 아름다움을 감상하려고 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과 같다. 꽃향기를 맡고, 아름다움을 눈으로 보기는 하지만, 창조물 속 깊이 내재하는 나의 손길은 보지 못하는 것이다. 계명들도 이와 매우 비슷하다. 그저 이 계명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준 율법의 보다 깊은 의미를 음미해야 한다.”

“제 4 계명은 ‘부모에게 효도하여라’고 명한다. 이 효도는 내가 너희 부모에게 위탁한 역할에 대한 깊은 감사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너희는 그들의 자녀이기에, 자식에 대한 그들의 친권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너희의 부모가 나이가 들면, 너희는 그들의 육체적, 감정적 복지를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책임들을 회피하는 것은 곧 제 4 계명을 모독하는 것이 된다.”

“너희의 부모가 노년에 이르면, 너희는 그들을 돌보아야 한다. 모든 부모가 훌륭한 부모의 역할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들을 너희의 부모로 선택했으므로, 너희는 그들을 너희의 부모로 받아들여야 한다. 너희가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면, 너희는 나를 공경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마태 22:34-40)

가장 큰 계명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 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새자들이 한데 모였다.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 2021년 6월 28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제 5 계명은 ‘사람을 죽이지 마라’이다. 요즘 시대에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이 계명을 위반하고 있다. 생명을 죽이는 행위는 어떤 것이든 제 5 계명을 모독하는 것이다. 낙태 산업 전체가 바로 이 계명의 위반을 중심으로 생겨났다. 이것은 즐기 세포 채취 및 사용도 포함된다. 이 외에도 안락사의 수용과 자살도 있다. 나는 주님이며 생명을 주는 이다. 오직 나만이 생명을 나에게로 (다시) 불러들이는 이가 되어야 한다.”

“이 계명에 대한 무시는 도덕을 최저점으로 끌어내렸다. 도덕의 타락은 나라의 전반적인 복지를 위협한다. 그래서 유례없는 대기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기본적인 생명권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인간의 생명은 잉태 순간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이 계명의 위반은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지배하려고 하는 인간의 헛된 시도일 뿐이다. 기본적으로 나의 뜻을 받아들이는 행위는 이런 태도를 방지한다. 나의 뜻은 모든 계명들의 기초이자 토대다.”

+ 성경 구절 독서 (마태 22:34-40)

가장 큰 계명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 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새자들이 한데 모였다.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 2021년 6월 29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모든 계명과 모든 죄와 마찬가지로, 의로움을 위반하는 데 동의하는 것은 먼저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제 6 계명 - ‘간음하지 마라’ - 도 이 규칙에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이 죄는 보통 두 사람의 동의를 요구하는데, 육체적으로 실행에 옮기지 않고 오직 마음만으로 이 죄를 지을 수도 있다.”

“나는 인간이 아이를 낳고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 성(性)을 창조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마음의 순결을 침해하는 혼외 행위나 생각은 - 만약 그것에 동의한다면 - 모두 죄가 된다. 오늘날의 세상은 성적 자극을 자유로운 선택으로 격하시켜 모든 이가 혼인 여부에 관계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 성적 향락은 엔터테인먼트와 광고, 의류 디자인 등의 도구가 되었다. 이는 인

간이 나의 계명에 대한 순종과 나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 자신의 즐거움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나에 대한 사랑에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을 너희 삶의 중심으로 삼아라. 그러면 어떤 죄도 너희 영성에 해를 끼치거나 너희의 영원한 목적지를 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마태 22:34-40)

가장 큰 계명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 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사이들이 한데 모였다.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 2021년 6월 30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제 7 계명 - ‘도둑질을 하지 마라’ - 또한 다른 계명과 마찬가지로 무질서한 자기만을 위한 사랑을 통해 위반된다. 이 계명을 모독하는 영혼은 나의 뜻보다 자기 자신을 앞세운다. 영혼은 정당하게 자신의 것과 정당하게 다른 이에게 속하는 것, 그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다. 간단히 말해서, 그는 자신이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을 빼앗는 것이다. 이것은 물질적인 것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명예에도 적용된다. 영혼이 다른 사람에 대해 좋지 않게 말할 때, 그는 그 사람의 명예를 빼앗는 것이다.”

“영혼은 또한 말이나 행위로 다른 이들에게 믿음을 바르게 전하지 않을 때도 이 계명을 위반하는 죄를 범한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는 다른 이의 마음속에서 믿음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작은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더 크고 더 엄청난 것을 도둑질하도록 마음을 부추긴다. 물론, 모든 절도 행위를 격려하는 것은 바로 사탄이다.”

+ 성경 구절 독서 (마태 22:34-40)

가장 큰 계명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 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사이들이 한데 모였다.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세 가지 축복 기도 카드를 5개까지 주문하시려면 자기 주소를 쓰고 우표를 붙인 회신용 봉투 (일반 흰색 편지 봉투)를 아래 주소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미국 내 우편에 사용되는 우표:
\$0.55 CENT FOREVER STAMP 한 장

국제 우편에 사용되는 우표:
\$1.20 GLOBAL FOREVER STAMP 한 장

위의 두 가지 우표 모두 우체국 (US Postal Service)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Holy Love Ministries
Attn: Free Triple Blessing Card
37137 Butternut Ridge Rd.
North Ridgeville, OH 44039

* 기도 카드는 편지 봉투 하나당 5개까지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LOVE LIFE. Pray for the Unborn.



태아묵주 (5단) **짧은 태아묵주**
확대된 묵주알

www.RosaryOfTheUnborn.com
주문: 440-327-4532 로 전화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주문 가능합니다.
Archangel Gabriel Enterprises Inc.
태아묵주 (5단) - \$29.95 짧은 태아묵주 - \$14.95
* 표시된 모든 가격에는 배송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메시지 용어 설명

목격증인, 메신저, 메시지들 (Visionary, Messenger, or the Messages):

천상이 미국인 목격증인 모린 스위니-카일에게 주시는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메시지들.

선교회, 선교사업, 성지 (Ministry, Mission, Property or Site):

미국 오하이오 (Ohio) 주 노스 릿지빌 (North Ridgeville) 시에 위치한 '마라나타 샘과 성지' (Maranatha Spring and Shrine)의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에큐메니컬 선교회 및 선교사업.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본부.

영적 여정, 거룩함의 여정, 심방들 (Spiritual Journey, Journey of holiness, Chambers):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인 하나되신 성심의 심방들을 통한 개인적 거룩함을 향한 영적 여정.

하나되신 성심 (United Hearts):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와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의 하나되신 성심.

남은 신자들, 남은 자 (Remnant Faithful, Remnant):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메시지에서는 두 가지 용어가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성경 구절: 모든 성경 구절은 천상의 요청에 의한 것이며, 한국어 성경 구절은 2005년 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새롭게 번역한 '성경'에서 발췌합니다.

정기 기도 모임

매일 묵주기도 모임 (월요일 - 일요일) 오후 7시

모든 기도 모임 참가자는 하나되신 성심의 완전한 축복이나 거룩한 사랑의 축복 또는 신성한 사랑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 중 한 가지 축복을 얻으면 나머지 축복의 은총도 다 얻는 것이 됩니다. 이 축복들은 말이나 기도 지향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는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께 하나되신 성심의 완전한 축복을 전해드립니다. 이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되신 성심의 성물 센터 (UNITED HEARTS BOOKSTORE)

하나되신 성심의 성물 센터는 월요일-금요일 (11:00-5:00), 토요일 (12:00-5:00), 일요일 (1:00-5:00) 까지 영업합니다 (영업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더 자세한 정보는 440-327-4532로 문의하시거나 성물 센터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RosaryOfTheUnborn.com

성지 오시는 길

마라나타 샘과 성지 (Maranatha Spring and Shrine)는 로레인 카운티 (Lorain County)의 남동쪽에 위치한 이튼 시 (Eaton Township)에 있으며 주소는 37137 Butternut Ridge Road입니다. 본 성지는 미국 오하이오 (Ohio)주 클리블랜드 (Cleveland) 시에서 서쪽으로 30분 거리에 위치하며, Route 83번과 Lorain Road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서쪽으로 1.3마일 지점에 있습니다. Lorain Road는 서쪽 방향으로 이동하실 때 Butternut Ridge Road로 이름이 바뀝니다. 본 성지는 Ohio Turnpike (I-80)에서 방향에 관계 없이 Exit 152번으로 나오시거나 Route 480 West (서쪽 방향)에서 Exit 2번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80번이나 480번 고속도로에서 나오시면 North Ridgeville 시의 Lorain Road가 나옵니다. Lorain Road에서 서쪽 방향으로 4마일 정도 가시면 (도로명이 Butternut Ridge Road로 바뀝니다) 왼쪽에 성지가 있습니다.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메시지

월 메시지 묶음 (뉴스레터): 본 뉴스레터는 목격증인인 모린 스위니-카일을 통해 주시는 모든 메시지를 출판합니다. **영어든 한국어 번역이든** 무료 월 메시지 묶음을 우편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자신의 이름과 주소, 우표가 붙여진 하얀 편지 봉투 (사이즈: 4 1/2" x 10 3/8") 12개**를 아래 성지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요금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Forever Stamps** 라고 하는 우표를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 봉투 사용시 통보해 드리며, 그때 다시 추가로 봉투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외국에 사시는 분들은 우체국에서 환율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퀴나스 웰컴 센터 (Aquinas Welcome Center)에

오시면 뉴스레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주의: 주소를 적으실 때 대문자로 크게 적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메시지 듣기 (영어): 녹음된 메시지를 듣고 싶으신 분은 (440) 327-5822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새 메시지는 가능한 한 매주 수요일 기도 모임 후에 업로드 됩니다.

이메일 수신: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를 이메일로 수신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성지 웹사이트 (영어)에서 가입하시거나 아래 이메일 주소로 수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MAMSHL@holyllove.org (영어)

HolyLoveKorean@gmail.com (한국어)

웹사이트: 메시지는 검토와 승인이 끝나는 즉시 웹사이트에 올려집니다.

기도 청원

우편, 전화,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기도 청원은 성모님의 축복의 지점에 올려집니다.

전화 신청: 440-327-8039 (영어)
440-657-0113 (한국어)

이메일 신청: PRAYERS@holyllove.org (영어)
HolyLoveKorean@gmail.com (한국어)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연락처

우편 주소: Holy Love Ministries
37137 Butternut Ridge Road
North Ridgeville, OH 44039

아퀴나스 웰컴 센터: 440-327-8006

선교회 팩스: 440-327-8017

메시지 듣기: 440-327-5822

선교회 이메일: MAMSHL@holyllove.org

체험담 제출: TESTIMONIES@holyllove.org

자원 봉사자: VOLUNTEERS@holyllove.org

웹사이트: www.hollylove.org (영어)

한국어 연락처: 440-657-0113 (전화)
HolyLoveKorean@gmail.com (이메일)
www.hollylovekorean.com (웹사이트)